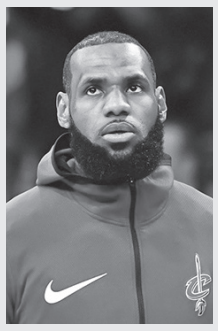
르브론 "관리차 결장 이해 안 돼"



미국프로농구(NBA) LA 레이커스의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35·사진)가 관리차 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18일 '스타뉴스' 에 따르면 제임스는 전날 미국의 야후스포츠를 통해 관리차 결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건강하다면 왜 경기를 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내가 뛸 경기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모른다. 또 그 경기를 볼 수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른다." 고 말했다.

올 시즌 리그 전체적으로 관리차 결장에 대해 말들이 많았다. 특히 LA 클리퍼스의 카와이 레너드(28) 등 슈퍼스타들이 부상 위험을 피한다는 이유로 빅매치에 결장하는 일이 있어 비난을 받았다.

팬들 입장에선 경기장을 찾았는데 슈퍼스타의 플레이를 볼 수 없다면 적잖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제임스는 팬들의 마음을 알고 최대한 많이 코트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제임스는 이날 현재 올 시즌 리그 27경기에서 평균 득점 26.1점, 리바운드 7.3개, 어시스트 10.7개를 기록 중이다. 35세라는 그의 나이가 무색할 기록이다.

최근에는 마이애미 히트의 뱀 아데바요(22)와 이주의 선수상을 받기도 했다. 제임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아데바요 축하한다. 충분히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고 칭찬하며 자신도 이주의 선수상을 받았으면서, 상대 선수부터 챙기는 멋진 모습을 보였다.

레이커스의 프랭크 보겔(46) 감독은 최근 "제임스가 최대한 적게 뛰면서 팀이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지만, 제임스의 출전시간은 34분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 고 말한 바 있다.

임성재 "내년 메이저대회 우승·올림픽 메달 목표"

미국남자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신인왕을 차지한 임성재(21·사진)가 내년 시즌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선언했다.

18일 '뉴시스' 에 따르면 임성재는 전날 서울 용산구 소재 그랜드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 KPGA 제네시스 대상 시상식' 에서 2연 연속 해외특별상을 받았다. 이번 시즌 PGA 투어 무대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임성재는 2018~2019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신인상을 수상했다. 임성재는 PGA 투어 2부격인 웹닷컴 투어에서 상금 랭킹 1위를 차지하며 PGA 투어에 안착했다. 최고 무대인 PGA 투어에서는 꾸준함으로 존재감을 뽐냈고, 신인 선수로는 유일하게 페덱스컵 시즌 마지막 대회인 투어 챔피언십에도 출전했다.

프레지던츠컵에서 인터내셔널팀 대표로 나와 3승1무1패의 좋은 성적을 올렸다. 임성재의 선전에도 인터내셔널팀의 미국에 패했다. 시즌을 마친 임성재는 곧바로 한국으로 귀국했다.

임성재는 이날 시상식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성재는 "프레지던츠컵 5경기에서 샷감이 좋았다. 미국팀 선수하고 경기할 때도 충분히 경쟁할만하더라. 그래서 좋은 성적을 냈다. 몇몇 선수들은 아쉽게 졌지만, 저는 5경기 동안 최선을 다했다. 자신감도 생겼다." 고 말했다.

임성재는 이번 시즌을 회상하며 "올해 이룰 거는 다 이뤘다. 첫 우승은 못했지만 신인상도 타고 투어 챔피언십, 프레지던츠컵에도 나갔다. 경기가 끝나고 좋은 성적이 나오면 이게 내가 한 게 맞는지 신기하다. 내가 많은 성장을 했구나 생각도 된다. 뜻대로 이뤄져 신기하다." 고 전했다.

그는 내년 시즌 메이저대회와 도쿄올림픽에서 선전을 다짐하기도 했다.

임성재는 "메이저대회에서 잘하는 선수가 강한 선수라고 생각한다. 일반 대회 우승도 좋지만 내년부터는 메이저대회 집중하려고 한다." 며 "현재까지 (올림픽 대표팀 발탁에)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대표팀에 내년 6월 말 선발된다. 그 전까지 누가 치고 올라올지 모르니까 방심하지 않고 최대한 좋은 성적 내서 대표팀에 합류하고 싶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도 목표다." 고 말했다.

NBA 팬, 구단·선수 상대로 1억 달러 소송

인종 차별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미국프로농구(NBA) 팬이 유타 재즈 구단과 조롱 대상이었던 선수를 상대로 1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헤럴드경제' 에 따르면 AP통신은 이날 "셰인 키젤이라는 이름의 유타 팬이 지난 3월 내려진 구단의 조치 때문에 직업을 잃고 신상이 드러나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유타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3월 12일 유타와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의 경기 도중 키젤은 관중석에서 오클라호마의 포인트가드 러셀 웨스트브룩(현 휴스턴)을 향해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 이에 웨스트브룩은 그와 그의 부인을 가리키며 "난 널 XX해 버릴거다. 너와 네 와이프를 XX해 버리겠다." 며 언쟁을 벌였고 이후 큰 논란을 일으켰다.

경기 후 웨스트브룩은 "이 부부가 내게 '옛날에 하던 것처럼 무릎을 꿇으라' 고 했다. 완전한 모욕" 이라고 흥분한 이유를 밝혔다. 무릎을 꿇으라는 것은 과거 흑인 노예 제도를 연상하게 하는 말로 이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에 해당한다. 유타의 연고지인 유타주는 백인이 전체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사태에 따라 NBA는 "팬을 향해 비속하고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 며 웨스트브룩에게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유타 구단은 키젤에게 경기장 영구 출입금지 조처를 내렸다.

키젤은 소장에서 "당시 내가 한 말은 '무릎을 조심하라' 였다." 며 "인종차별 의도는 전혀 없었다." 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Allstate®
You're in good hands.

© 2019 Allstate Insurance Co.

9772519

이광연공인회계사

"재산관리와 증식을 도와드립니다"

32년 경력의 세무·회계·재정계획전문가

- 세금보고 ● 감사대행
- 투자상담(Mutual Fund - 뮤추얼 펀드)
- 은퇴계획(Retirement Plannning)
  IRA'S IRA Rollover
  401(K), SEP, SIMPLE IRA
- 자녀대학 학자금 계획(College funding Plan)
- 상속계획(Estate plan)

Tel: (714)539-6444/5 Fax: (714)539-9261
9828 Garden Grove Blvd. #213, G.G, CA 92844
〈한미은행 옆, 김약국 2층〉